

주님안에서 사랑하는 모든 크리스천분들에게..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이사야 63장

7~8절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전 공지했던 변재창목사에 관한 네번째 공판이 2010년 6월9일 수요일오후 1시30분부터 미토지방법원의 초치우라지부(이바라기현)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공판에서는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A양의 증언이 얼마나 악의에 찬 거짓 증언이었는지가 명확하게 밝혀졌습니다.

먼저, 네번째 공판 전까지의 상황을 요약하면,

A양은, 경찰과 검찰 조사, 그리고 첫번째 공판에서, 2007년 2월 17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5시 사이에, 변재창목사의 자택의 침실(목사실)에서 준강간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양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변재창목사의 자택에는 A양과 변재창목사, 변재창목사의 부인, 여성 스텝등 총 네 사람이 집안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피해를 당하던 시간대에는, 변재창목사의 부인과 여성스텝은 장을 보러 나가서 부재중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피해를 당한 후에도 A양은 변재창목사의 집에 남아서, 장을 보고 돌아온 변재창목사의 부인, 여성스텝과 함께, 총 4명이 함께 저녁식사를 먹고나서 집으로 돌아갔다고 주장했고, 자신의 증언은 거짓이 아님을 재판관 앞에서 서약했습니다.

그리고 A양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서, A양의 Q.T 노트를 제출했고, 첫번째 공판에서 그 내용이 공개되었지만, 사건 당시를 기록했다고 하는 Q.T 노트의 어느 곳에서도, 변재창목사로부터 성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개인적으로 고민했던 내용들이 적혀 있었는데, A양은 그것이 변재창목사와의 사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처럼 억지로 연결하려고 했던 것 뿐이었습니다.

또한, A양은 2007년 2월17일에 준강간 피해를 당한 것 뿐아니라, 그 외에도 수 년간에 걸쳐서 변재창목사로부터 성적인 피해를 당해왔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물로 몇 권의 Q.T 노트를 제출 하였고, 그것이 공판에서 공개되었으나, A양이 주장하는 성적인 피해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네번째 공판에서 증언한 K목사의 증언은, A양의 지금까지의 주장이 모든 거짓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변재창목사측의 증언자로서, 증언대에 선 K목사는, 확고한 성경 중심의 신앙을 기준으로 세워진 한국의 전통 교단의 목사이며, 그 교단의 중책을 맡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K목사는 네번째 공판에서, A양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2007년 2월 17일에 변재창목사의 자택에서 변재창목사의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음을 증언하였습니다.

이 증언에 따르면, 당일 변재창목사의 자택에는, 이번에 증인으로 나선 K목사뿐 아니라 K목사의 부인과 또 다른 목사 부부도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A양이 함께 저녁식사를 했다는 여성 스텝은 함께 있지 않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2007년 2월 17일에는 변재창목사의 가족과 K목사를 포함한 4명의 손님만이 변재창목사의 집에 있었으며 A양은 그 곳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K목사는 이번 공판에서, 단순한 증언이나 주장을 말한것이 아니라, 변재창목사를

방문했던 당시에, K목사가 본인의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들과 일본에 있었을 때의 행동을 기록하였던 수첩을 증거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공판에서 공개된 사진들에 의하면, K목사부부를 포함한 일행들은 2007년 2월 17일 오전 11시경 변재창목사의 집에 도착하였고, A양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오후 3시부터 5시 사이에는 변재창목사와 함께 야외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A양이 주장했던 범행 현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변재창목사의 침실(목사실)은, 당일부터 다음날까지 K목사부부가 사용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증거사진이 왜 지금에서야 발견되었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는,

1. 변재창목사가 2010년 1월 28일에 체포당하기 전에는, A양은 피해를 입었다는 시기등을 명확하게 말하지 않고, 자신이 당했다는 성적인 피해의 상황만을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전혀 대응할 방법이 없었다는 것 입니다.

2. 저희들이 A양이 피해를 입었다는 명확한 내용과 시기, 장소를 알게 된 것은 변재창목사가 체포된 후 교단의 스텝들이 경찰에게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부터입니다. 저희들은 2007년 2월 17일경의 일들에 대하여 조사를 받았으나, 목사들의 수첩이나 교회에 보관했던 문서등 당시의 일들을 증명할 수 있을 만한 기록들은 거의 압수를 당했기 때문에 경찰의 조사에 대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변재창목사가 기소되기 불과 수일 전에, 2007년 2월 18일의 예배의 상황이 담겨져있는 카세트 테이프가 발견되었고, 그 카세트 테이프를 통해서, 당시 한국에서 K목사 일행이 변재창목사를 방문해 왔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3. 저희들은 그 카세트 테이프를 통하여, 사건이 발생했다고하는, 2007년 2월 17일부터 K목사를 포함하여 4명의 손님이 변재창목사의 자택에서 숙박했던 일을 기억해 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계시는 K목사에게 긴급하게 연락을 취하여, 당시 숙박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만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가를 물었고, 이에 대해서, K목사는 본인이 찍은 사진과 당시 상황을 기록한 수첩이 있을 것이니 찾아보겠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2007년 2월에 일본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관했던 노트북을 몇 년 전에 분실하여 당시의 사진이, 현재는 남아있지 않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무엇인가 증거가 될만한 것이 있는지 찾아봐 주실 것을 부탁을 드렸고, 평소 사진 촬영을 취미로 즐기시던 K목사는, 자신의 독사진만을 따로 보관했던 것을 기억하시고 2장의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은 2007년 2월 17일의 오후 3시반경 변재창 목사택에서 멀지 않은 배추밭에서 찍은 사진과 오후 4시 50분경에 변재창목사의 집안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이 사진과 K목사의 증언을 정리하여 변재창목사가 기소되기 몇 일전에 검찰에게 제출했습니다만, 검찰은 이 모든 증거물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도 않고, 2010년 2월 17일에 변재창목사를 기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4. 저희들은 변재창목사가 기소된 후에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K목사에게 증거가 될만한 사진이 더 없는지 찾아봐 주시기를 계속해서 부탁드렸습니다만, 2010년 4월까지는 앞서 기술한 2장의 사진 이외의 증거가 될만한 사진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5. 하지만 5월이 되고 K목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전에 이사를 했을 때 포장해 둔채로 아직까지 열지 않았던 이삿짐 상자를 최근 정리하면서, 2007년 2월경, 일본을 방문했던

당시 찍었던 거의 모든 사진이 들어있는 외장하드디스크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열린 공판에서는 그 중 2007년 2월 17일의 오전부터 2월18일까지 변재창목사의 자택에서 숙박했던 때의 사진과 특히 A양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2007년 2월 17일 오후 3시부터 5시 사이에 변재창목사와 야외에서 찍은 사진 등이 제출, 공개되었습니다.

6. 이러한 증거들로 인하여 변재창 목사가 2007년 2월 17일에 A양이 주장했던 범행장소와 피해시기에 다른 곳에 있었다는 것이 명확하게 증명되었습니다.

7. 변재창목사는 2008년 12월부터 A양이 주장하는 일들에 대해서, 자신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반론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일은 저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어 왔습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슬픈 현실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전부를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믿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틀림이 없으시고, 언제나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8. 앞으로 저희들은 이 문제 뒤에 숨어있는 사람들의 거짓들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특히 거짓 진술을 한 사람들의 말은 검찰의 조사 기록에 그래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그들이 검찰과 경찰에 진술했던 것을 기초로 해서, 그들의 진술과 퍼트린 소문이 완전히 거짓이었다는 것을,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증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 몇 년 사이에 교회를 파괴하려는 움직임이 끊이지않고 있으며, 이러한 자신들의 행위가 마치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거짓과 숨겨진 욕망과 야심등을 명백하게 드러냄으로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 입니다.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누가복음 12장 1~3절

「내가 싸워야 함은 승리가 아니라, 진리를 지키기 위함이다 」 아브라함 링컨

2010년6월11일
국제복음 그리스도 교단
대표목사일동